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 녹색당 · 육지사는제주사람 · 환경운동연합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 제안의 건

1. 평화 · 인권 · 생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의 성산지역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고, 이후 지난 2년 간 지역 주민과 도민 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건설 강행을 결사 저지해왔습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알렸고,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의 오류를 밝혔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토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일, 내년 초에 검토보고서를 재조사한다는 계획과 함께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검토보고서 재조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강행을 전제로 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며, 성산주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3일 째 입니다.
4.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제는 이 투쟁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려 합니다. 성산대책위 · 범도민행동 · 녹색당 · 육지사는제주사람 · 환경운동연합 이상 5개 단체는 <제주를제주답게 제주제2공항저지전국네트워크>(이하 제2넷)의 구성을 결의하고 ‘제주의 제주다운 환경과 제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이 투쟁’에 시민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5. 붙임의 제안서를 읽어주시고, 참여 여부를 적극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강원보 집행위원장(성산대책위)

박정경수 팀장(녹색당)

장하나 팀장(환경운동연합)

□ 붙임 : 1. 제안서. 1부. 끝.

<제안서>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전국네트워크’에 함께해 주십시오.

바람 타는 섬, 제주에 몰아치고 있는 풍광

제주는 바람 타는 섬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거셉니다. 이런 바람뿐만 아니라 제주는 역사적으로 늘 외풍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700여 년 전에는 몽골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제주도를 교두보로 삼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제주도를 방패로,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배인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70년 전에는 3만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는 제주 4.3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개발바람이 제주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내외 거대 자본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대규모 관광시설 건설을 통한 짹짹한 관광수입에 매력을 느끼고 제주도 전체에 수많은 골프장,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자본들이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 등 초원지대와 풍광이 좋은 곳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거점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제주공군기지 구축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이 모든 바람들의 기폭제가 될 것

그런데, 이전의 개발 바람과는 다른 더욱 더 거센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제2공항입니다. 2015년 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사업부지까지 확정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주도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은 2년간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50만평에 가까운 제2공항 예정 부지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집과 밭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중 온평리 ‘혼인지’ 마을은 제주도 건국신화가 시작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제주 역사상 최대의 실항민 사태입니다.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 이 땅의 주인들이 떠나야 하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대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강제수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비단, 주민들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섬에 2개의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제주는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작년, 제주에는 약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는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제주 시 앞바다로 1년간 몰래 방류되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지하수위가 관측 이래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중산간 마을에서는 35일간 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주도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2공항 사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 제2공항은 무분별한 관광객

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은 제2공항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생활물가도 육지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도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삶은 이미 피폐해지고 있으며 투어리피케이션(거주지역이 관광지화 되면서 원주민이 이탈하는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인과 관광객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드는 것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일입니다.

이제 촛불혁명 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 '토건재벌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었고 그 과정에서 강이 죽고, 물이 썩고, 강물과 강변에서 살아가던 무수한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제2공항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토건 사업으로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국토부 조직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구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성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오름 10개가 절취되고, 세계 최대의 용암동굴군락이 매몰되고, 제주의 바다에 죽음이 드리울 것입니다. 즉 제2공항의 수혜자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바로 적폐세력들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공군기지(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성산 공군기지까지 설치되는 순간 제주는 평화의 섬에서 군사위기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주는 현대사의 아픔이 진하게 배인 곳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이 응축된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은 제주 4.3 제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를 목 놓아 부르짖어도 모자랄 이때,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를 또다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절차적 투명성 및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초 부실·허위작성 논란이 있는 사전 검토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전제로 한 재조사는 대통령 공약을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에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12월 6일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로공원에서 1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경투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을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인의 소유물이 아니듯, 평화와 인권과 생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연대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 땅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적정관광을 실현한다면 제1공항 확장으로 충분합니다. 제주를 아낀다면, 제주를 제주답게 지켜주십시오! 제주를 사랑한다면, 제주인의 삶도 걱정해주시십시오.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저지 전국 네트워크에 귀 단체의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2017. 12. 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 녹색당 · 육지사는제주사람 · 환경운동연합